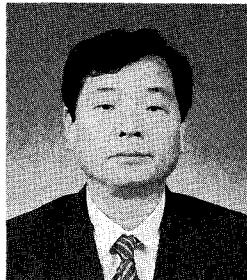


## 육계 생산 현황과 수급조절 방안



조 소 연

(협중앙회 목우촌 음성 계육기공 공장장)

### 1. 육계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기에 이 난리인가?

닭 깃은 좋고 병아리는 부족하다보니 종계·부화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계 입식 수수를 크게 늘림에 따라 병아리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6월의 육계사육 마리수는 사상 최대인 72백만수를 넘어섰다.

금년 8월까지 종계 입식수수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4,860천수가 입식되었고 9월 이후 연말까지 생산될 병아리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29.1% 늘어난 15,550천수로 추정된다.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수수는 301,248천수로 전년 동기 261,610천수에 비하여 15.2%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수입량도 같은 기간동안 63,773톤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 수입량 50,509톤 대비 26.3% 급증 하였다.

표1. 연도별 육계 사육수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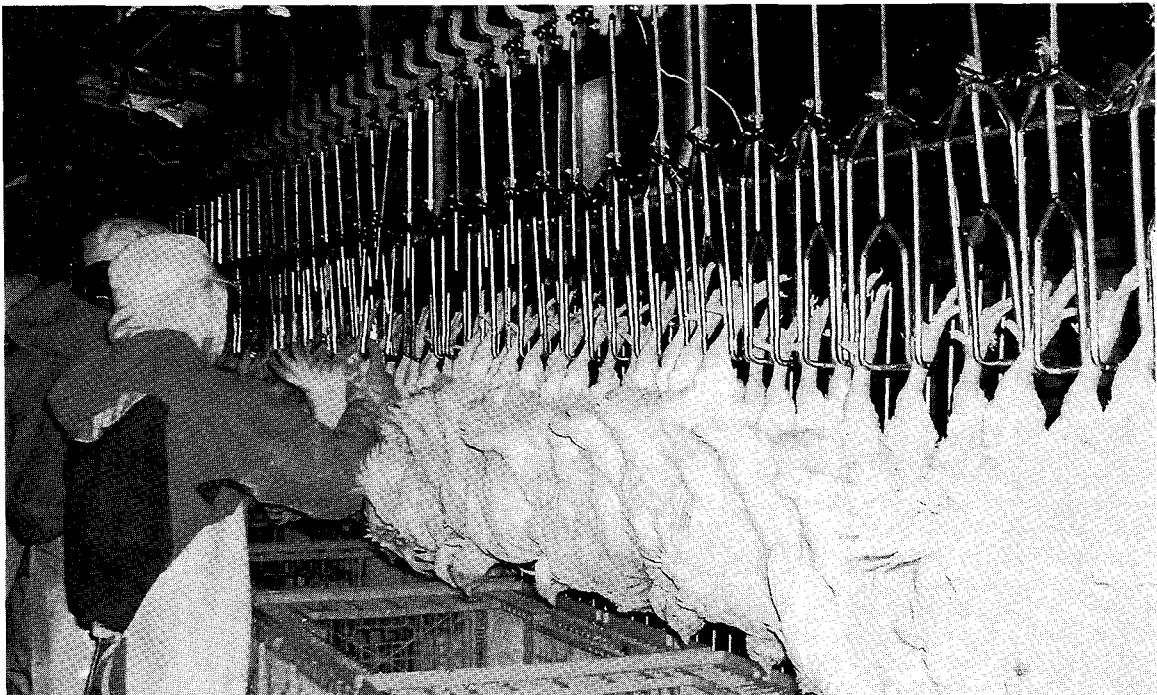
(단위: 천수)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2001년	43,357	66,742	48,875	45,660
2002년	52,436	72,193		
전년비	120.9%	108.2%		

표2. 육용종계 입식 현황

(단위: 천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2001년	179	338	408	337	375	312	268	435	4,218
2002년	225	332	499	446	396	380	580	520	4,860
전년비	126.1	98.3	122.4	132.4	105.7	121.8	216.5	119.5	127.4



## 2. 육계산업의 불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난해는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병아리 부족, 잣은 질병 등의 여파로 육계시세가 연중 강세를 유지하더니 금년 들어서는 사육수수가 급증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잣은 비와 여름답지 않은 날씨로 인하여 닭고기 소비마저 둔화돼 육계가격은 연중 최대 성수기인 6~8월에도 생산비를 밑도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였고 9월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육계인들의 가슴앓이는 깊어만 간다.

금년도 종계 입식수수가 지난해 보다 27% 이상 많다보니 내년도 육계사업 전망도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 3. 육계가격이 장기간 생산비 이하의 약세가 예상된다면 어찌해야 될까?

국내에서 도계장과 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들 대부분이 계열사육을 하고 있다.

계열사육을 하는 기본취지는 안정적으로 원료육을 조달하고 일정한 생산비 수준을 유지하여 기복이 심한 육계가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닭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지속된다면 사육물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사육하면 할 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자체 종계장, 부화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물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 병아리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게

되고 유사 계열업체와 일반 닭 사육농가도 사육을 기피하게 될 것 이므로 종계업계 및 부화업계도 판로가 줄어드니까 병아리 생산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되는 시점 까지는 이러한 현상은 시장 경제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러치 못하다.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며 육계산업에도 존재한다.

육계는 타 축종에 비하여 사육 일령이 짧으므로 가격 주기 역시 짧다. 그럼에도 닭 가격이 내년도 까지도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현재의 불황을 잘 버티고 있으면 포기하거나 부도나는 업체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물량 부족으로 육계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며 살아남은 자의 시장은 더 넓어지고 더 수지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 4.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육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적정 사육규모를 판단하고 초과되는 물량은 업계가 역할 분담하여 감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업계 현실은 외부요인에 의한 소비감소나 수입육 증가로 인한 것보다는 업계 스스로 자초한 생산과잉으로 본다.

과거 수십년간 육계업에 몸 담아온 국내 굴

지의 업체들이 인위적으로 연출해 낸 결과로 써 거시적 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경제나 육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될게 없는 결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매듭은 결국 우리 업계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단기적 대책으로 육계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육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 육계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얼마를 줄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다.

육계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종계·부화업을 시작하는 업체도 있고 도계·가공장 규모를 늘리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나 육계인들이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있는 닭 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12일 까지의 일정으로 종계 도태사업이 시작됐다는

#### [ 종계 도태사업 요약 ]

- 사업기간 : 2002. 9. 4~10. 12(40일간)
- 도태규모 : 50만수
- 도태보조금 지원액 : 750백만원
- 도태 수당 보조금 지급액
  - 11개월령(360일령 이하) 2,000원
  - 12개월령(361~390일령) 1,500원
  - 13개월령(391~420일령) 1,000원
  - 14개월령(421~450일령) 500원

점이다.

종계 도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이 안정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기회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계 및 난계대 전염병 보유계균 등은 전량 도태되고 환우는 가급적 지양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계열사육을 하시는 농가 분들도 요즘과 같이 어려운 다행인 것은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있는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종계 도태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종계 도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이 안정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기회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계 및 난계대 전염병 보유계균 등은 전량 도태되고 환우는 가급적 지양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계열사육을 하시는 농가 분들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입추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조금만 참아 준다면 육계불황을 타개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이다.

둘째,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계열업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7.3kg으로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12.8kg(1.8배), 대만 27.9kg(3.8배), 홍콩은 43.4kg(5.9배)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색육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백색육 소비가 증가 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잠재력은 매우 높으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서 조차 벌크로 공급된 통닭을 도마에 놓고 조각을 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냉장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좌판에 놓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육류는 가공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균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냉장 보관이 안 된다면 쉽게 부패 변질될 수 있다. 더욱이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으므로 유통·보관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소비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계장·가공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닭을 벌크 보다는 개별 포장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면 소비자에게 더욱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이 가능하며, 가공업체별로 위생 관리 수준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므로 자사 브랜드 이미지관리를 위해서도 위생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각닭이나 부분육은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가공공장에서 직접 가공·포장하여 유통시킨다면 닭고기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닭고기 소비홍보가 필요하다.

작금의 육계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산물량 감축 못지 않게 소비확대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업체별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